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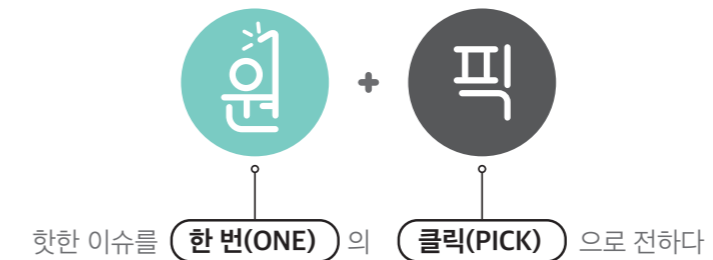
바야흐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.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<고양소식>이 세계관을 넓힌다.
 시공간을 초월해 <고양소식>을 만날 수 있는 웹사이트 '고양원픽'이 6월부터 시민들 곁을 찾아간다.
 단순한 웹진이 아니다. 지면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온라인 세상에는 특례시로 날아오를 고양의 모든 것이
 차곡차곡 쌓인다. 그래서 준비했다. Q&A로 알아보는 '고양원픽'의 모든 것.



질문 하나.

'고양원픽'이라는 이름이 신선합니다.
 어떻게 만들어졌나요?

'고양원픽'은 <고양소식> 발행을 책임지는 고양시 언론홍보담당관실의 야심작입니다. 준비 단계만 반 년 이상 걸릴 정도로 많은 공을 들였죠. 특히 웹사이트 네이밍을 하며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. 사이트가 연락처하려면 시민의 뇌리에 깊이 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. 이에 언론홍보담당관 구성원 30여 명이 머리를 맞댔습니다. '알릴고양', '블러썸고양', '고양알집'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, 열띤 토론과 공정한 투표를 거쳐 '고양원픽'이 낙점되었습니다. '고양원픽'이란 이름에는 '고양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클릭 한 번, 터치 한 번으로 시민에게 원스톱으로 전한다'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.



지난호보기 뉴스레터 생생소식

질문 둘.

'고양원픽'을 만들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.

'고양원픽'의 탄생에는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. 디지털 매체를 통한 정보 습득이 오프라인을 앞지르고 있는 상황에 주목한 것이죠. 책자 형태의 <고양소식>을 온라인 상에서도 쉽고 편하게 전하고자 한 고민이 그 출발이었습니다. 이왕이면 단순 웹진을 뛰어넘는, 고양의 다양한 소식을 총망라하는 소통 플랫폼이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였고, 이를 실현했습니다. 역설적이지만,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의 탄생이 기존 책자형 <고양소식>에 대한 추가적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도 큼니다.